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2024년 제101호

2024.04.11.(목)

##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통상** 美, 35개 주 에너지 프로젝트에 IRA 투자세액공제 40억 달러 할당
- 미·일·통상** 美·日, 탈탄소 보조금에 대한 공통 규칙 마련 추진 등 협력 확대
- EU·에너지** '23년 EU 산업 및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 15.5% 감소
- 프랑스·섬유** 佛, 패스트패션 퇴출 가속화...탈탄소 정책의 산업 영향력 확대

### 주간 이슈 포커스

- EU·통상** EU 중국産 제품 대상 반보조금 조사 개시

### 원자재 뉴스 PLUS

- 원유**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배럴당 100달러 돌파 우려 제기

## II. 월간 공급망

- 안건형 교수** EU의 무역통상 정책과 ESG와의 관계 이해

##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부문의 사이버안보 위험과 강화방안

## IV. 공급망 소식통

- 구독자 이벤트** 신규구독자·기존구독자 이벤트
- KOTRA** 2024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미국, 통상 美, 35개 주 에너지 프로젝트에 IRA 투자세액공제 40억 달러 할당

3.29일(현지시간) 美 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5개 주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40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액 공제 계획을 발표

美 에너지부는 첨단에너지 세액공제(48C)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30%의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으로 선정된 기업 및 프로젝트 정보는 정부의 인증 작업 이후 공개될 전망

▲제조 및 재활용 분야에 27억 달러, ▲핵심광물 가공 및 정제에 8억 달러, ▲탈탄소화에 5억 달러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동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美 투자 어젠다'의 일부로 ▲고임금 일자리 창출, ▲에너지 비용 절감, ▲국내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지원될 예정

선정된 개별 프로젝트는 2년 이내 정보 제출·인증 및 사업 개시가 필요하며, 현지 언론은 향후 수개월 이내에 2차 예산 할당 및 관련 공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

핵심 키워드

IRA

세액공제

에너지

출처 美 에너지부 보도자료(24.03.29),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26호(24.04.0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미·일, 통상 美·日, 탈탄소 보조금에 대한 공통 규칙 마련 추진 등 협력 확대

4.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美·日 양국은 오는 10일 정상회담에서 탈탄소 보조금 관련 공통 규칙 마련을 위한 각료급 대화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보도

양국은 오는 정상회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부품 등 공급망 안정성, ▲사이버보안 등의 보조금·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조율할 예정

양국은 脫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정책을 확대 중이며 적용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로 조율 중인 상황

기시다 日 총리는 "양국의 탈탄소 투자 촉진을 위해 日 GX(녹색 전환) 전략과 美 IRA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탈탄소와 경제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

핵심 키워드

IRA

GX

탈탄소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04.05), 일본 경제 브리핑 14호(24.04.08)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 EU, 에너지 '23년 EU 산업 및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 15.5% 감소

- 4.3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23년 EU 산업 및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5.5%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05년 대비 47% 감축을 달성했다고 보도
  - 가장 큰 감축을 보인 분야는 전력 부문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의 증가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24% 감소하였으며,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생산량 감소로 배출량이 7% 감소
  - 다만 항공 부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영되지 않던 항공업계의 지속적인 회복세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10% 증가
-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의 분석에 따르면 '30년 탄소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23년의 감축세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등 상반된 의견 존재
  - 베를린에 소재한 한 싱크탱크는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의 상당 부분은 석탄 소비의 예상치 못한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핵심 키워드

탄소 감축

에너지

탄소배출권

출처: Euractiv('24.04.04), 로이터통신('24.04.0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프랑스, 섬유 佛, 패스트패션 퇴출 가속화...탈탄소 정책의 산업 영향력 확대

- 4.3일(현지시간) 佛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류 제품에 친환경 기여도를 정량화해 표기하는 친환경 라벨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패스트패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훼손 여부, ▲물·기타 천연자원 소비,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영향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 산정하며,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친환경적임을 의미
  - \* 패스트패션(Fast Fashion): 패스트푸드와 같이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빠르게 의류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의류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EU 역내 섬유 산업은 유럽 폐기물 기본지침 개정 및 공급망 실사지침과 맞닿아 있는 중요 산업
  - 佛 정부는 “동 라벨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시행되나, 오는 '25년부터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
- 이 외에도, 佛 정부는 의류 제품을 필두로 화장품·가구 등 다른 제품군으로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등 유럽의 탈탄소·친환경 정책의 영향력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현재 프랑스는 패스트패션 기업에 ‘환경 기여금(eco-contribution)’을 부과하는 등의 패스트패션 기업 규제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핵심 키워드

패스트패션

탈탄소

친환경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4.04.03), EU 주간 브리핑 125호('24.04.05)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통상 EU 중국산 제품 대상 반보조금 조사 개시

3.27일(현지시간) EU는 관보를 통해 역내 업계가 지난 2.13일 제기했던 중국산 이동식 장비\*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음을 발표

\* Mobile Access Equipment: 사람을 들어서 올리기 위한 이동식 장비

- 이에 따라 조사 개시에 따른 불만사항 및 의견은 본 공지 게시일인 3.27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제출 필요
- 반보조금 조사는 최대 13개월이 소요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계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EU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동향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中 정부의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EU 역내 산업의 피해 발생으로, 반보조금 조사 개시 예고('23.9.13일)</li> <li>EU 역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점유율: ('23년) 19.5% → ('24년) 25.3%<sup>추정치</sup></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개시) 업계 제소 없이 집행위 직권 조사 개시*('23.10.4일)</li> <li>* (HS Code) 870380 / (CN Code) 87038010</li> <li>(추진 목표) 수입산 자동차 관세 10% → 25% 인상</li> <li>(시행 근거) '16년 제정된 EU 반보조금 규정</li> </ul>
전 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대 효과) 관세 인상 시 최대 60억 유로(약 8조 8,000억 원) 규모의 수입 효과</li> <li>(향후 전망) 중형 세단-SUV 대상 고관세 부과 시, 유럽산 제품보다 경쟁력 저하되어 中 기업의 향후 유럽 내 제조 확대 가능성 제기</li> </ul>

참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수입 자동차 관세율: (EU) 10% / (미국) 27.5% / (인도) 70%</li> <li>타국 대비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출 용이</li> <li>美 IRA법 추진에 따른 북미 시장 진출 여건 악화로, 중국산 전기차의 EU 수출 확대</li> </ul>
-----	--

향후 전망

이 외에 유럽의회 의원들이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활동에 따라 중국산 제품군 중 반보조금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다만 반보조금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가 장기적 차원에서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여, 관련 EU 업계의 대비 필요 예상

핵심 키워드

보조금

전기차

태양광 패널

출처: EU 관보('24.03.27), EU 주간 브리핑 124호('24.04.0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유** |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배럴당 100달러 돌파 우려 제기

- 4.7일(현지시간) 포춘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이 2년만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추세
- 최근 홍해 후티 반군 공격 지속 등 지정학적 요인과 멕시코 원유 수출 감소·OPEC+의 감산 정책 등이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4월 1주)

**비철금속** | 中 경기지표 개선에 따른 동 가격 ↑, 주요 생산업체 감산 전망에 따른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3월	전년비(%)	3.4주	4.1주	전주비(%)
동	8,478	8,444	△0.4	8,734	9,077	3.9
니켈	21,474	16,611	△22.6	16,573	17,144	3.4
아연	2,647	2,449	△7.5	2,405	2,502	4.0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中 제조업 경기지표 개선 및 주요국 공급차질 우려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 美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 美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달러가치가 상승하며 상기 상승압력 부분 상쇄
- (니켈) 中 제조업 경기지표 개선 및 주요 니켈 생산업체의 감산 전망으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 다만, 인니 니켈 생산능력 확대로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상기 상승압력 부분 상쇄

**철강** | 中 부동산 경기둔화 및 美 달러화 가치상승으로 철강석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	'24.3월	전년비(%)	3.4주	4.1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26.62	△26.9	129.48	131.51	1.6
원료탄	295.71	310.14	4.9	244.75	231.38	△5.5
철광석	119.32	125.47	5.2	104.12	100.36	△3.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中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철강산업 원재료 수요둔화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유연탄) 유가 상승 및 中 석탄 생산규제 강화에 따른 석탄 감산으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4월 1주)

희소금속 | 제안가 하락에 따른 페로망간 가격↑, 영구자석 공급량 감소에 따른 희토류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3월	전년비(%)	3.4주	4.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23	△11.3	1,115	1,060	△4.9
탄산리튬	35,697	15,425	△56.8	15,026	14,951	△0.5
수산화리튬	37,972	14,111	△62.8	14,198	14,125	△0.5
코발트	17.82	17.33	△2.7	17.34	17.38	0.2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55,500	△22.6	254,700	258,167	1.4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0,024	△36.2	49,800	50,967	2.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공급업체가 낮은 현물 수요로 인해 제안가를 낮추면서 전주 대비 가격 하락

☐ (코발트) 유럽 서부 생산업체의 낮은 생산량으로 공급량은 적으나, 중국산 코발트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

☐ (희토류) 산화 디스프로슘 네오디뮴은 가격 하락세에 따른 원료 공급업체의 공급량 감축으로 전주 대비 가격 상승

에너지 | 러시아 정유 설비 피격 지속 및 주요국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년	전년비(%)	3.4주	4.1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81.95	△0.15	85.80	88.95	3.15
브렌트유	82.17	82.44	0.28	86.64	89.08	2.44
WTI	77.60	77.70	0.09	82.02	85.22	3.20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러시아 정유 설비 피격 지속, ▲美·中 등 주요국 경기지표 개선, ▲멕시코 원유 수출 중단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세 지속

🔍 4.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러시아 정유기업 Taneco의 정유 시설에 피격에 따른 화재 발생 후 진압되었다고 보도

🔍 美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2월 47.8 대비 개선되었으며, 中 PMI 또한 50.8~51.1로 전망치 상회

🔍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는 원유 수출 일부 물량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자는 4월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

## 월간 공급망

### ◆ EU의 무역통상 정책과 ESG와의 관계 이해

작성 경기대 무역학과 안건형 교수

#### 1. 개관

- EU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정책 전략은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전략이며,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단호한(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무역정책을 통해 EU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향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단호한”이라는 각 용어의 의미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개방적(open)”이란 EU 경제를 위기로부터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와 연결시키기 위한 무역 및 투자 관련 글로벌 규범을 개방적 태도로 준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란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더욱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셋째, “단호한(assertive)”이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관행에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미이다.
- EU는 이러한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단호한” 무역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주요조치, 즉 1) WTO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지원, 2)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Transatlantic Partnership)을 재구축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며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해결, 3) EU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무역협정들을 이행 및 집행하며, 나아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정책과 조치들의 활용, 그리고 4) 비EU 국가들의 강압적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반강제 조치 제안 및 채택 등을 취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 EU의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단호한” 무역정책 중에서 ESG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개념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무역정책이다. EU는 유럽의 27개국(Brexit로 인해 영국은 현재 비회원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공적으로 통합한 경험이 있고, 전 세계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및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EU는 규칙 기반(rule-based) 무역질서를 선도함으로써 EU의 법적·정책적·기술적 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함으로써 자국의 산업과 기업들을 보호하고 진흥시키는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그리고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본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하는 등 무역 및 통상 관련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그렇다면, EU는 어떠한 ESG 관련 입법 및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향후 전개되는 신무역통상 질서 재편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EU의 무역통상 정책에 포함된 ESG 관련 입법 및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 지면의 제약상 환경(E)과 사회(S) 부문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 2. EU의 환경(E)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 EU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진국이다. EU는 미국, 중국, 일본 및 기타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환경 관련 EU의 표준들이 국제적 표준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 표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이러한 표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국가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U 기업들이 환경 관련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입법이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경보호를 공정경쟁의 문제와 연계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규제가 EU보다 느슨한 국가 내의 기업들이 EU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조한 후 EU에 수출하는 경우 EU 역내 기업들로서는 가격경쟁력 열위 리스크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자국의 수입업체들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제조국에서 지급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 간의 차액(탄소세) 만큼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CBAM의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1] CBAM 주요 내용 요약·정리

주 제	내 용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관련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등 6개 품목(유기화학, 폴리머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추가 가능성 존재)</li> </ul>
배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품목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실질 탄소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탄소배출량: 철강, 알루미늄, 수소</li> <li>▶ 간접 탄소배출량 포함(제품 생산 시 사용된 전력): 시멘트, 전력, 비료</li> </ul> </li> <li>* 철강 관련 전구체는 생산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도 포함</li> </ul>
전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10월 ~ '25.12월('26.1월 본격 시행)</li> <li>전환기간 동안 EU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의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분기별 보고의무만 부과되고, 인증서 구매의무는 유예</li> <li>본격 시행 이후에는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수입물품에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 구매 의무화</li> </ul> </li> </ul>
적용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용 물품 및 내재가치(intrinsic value) 150 유로 이하의 수입물품</li> </ul>
우회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회방지 위반 의심 시 EU 집행위는 9개월 내 조사 시행(CBAM법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기준(150 유로)를 맞추기 위한 인위적 화물 분할 선적/발송 방지</li> <li>▶ CBAM 적용 품목을 다른 HS Code로 변경 방지</li> </ul> </li> </ul>

출처: 양은영,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관련 동향 - EU 회원국별 준비상황 및 현지 동향, 대한상공회의소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발표자료집, 2024. 3. 19.

EU는 또한 유럽 그린딜(Europe Green Deal; 2019),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 신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 2021) 및 배터리에 대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on Batteries; 2018)의 정책 목표들을 반영하여 EU의 친환경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EU의 탈탄소 경제 달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EU 배터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수명 종료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료 회수 목표를 상향하고, 생산자들에게 배터리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기 위한 환경 관련 입법 패키지로써 2021년 “FIT for 55”라는 프로젝트를 발족하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및 재활용 요건 규제가 대폭 강화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이 2023년 12월 6일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등 세 주체 간 합의된 바 있다. 동 규정은 종래의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규정(Directive)’으로 강화\*하여 섬유, 가구, 철강 등 거의 전 제품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 및 입법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WTO 차원에서 관련 협의체인 IDP (플라스틱 오염 방지 비공식 대화)가 2020년 발족된 후, 플라스틱 무역 증진 및 저감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이행 수단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EU의 법률체계 상 “규정”은 제정 즉시 모든 EU 회원국의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다. 반면에, “지침”은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개별 회원국에 위임되며 당해 지침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들에서 별도의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 3. EU의 사회(S)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중소기업의 임원들 사이에서 ESG와 관련하여, 환경(E)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못하겠고, 사회(S)는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겠고, 지배구조(G)는 오너 및 경영진들이 너무 하기 싫어해서 못하겠다는 농담이 돌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다. 아마도 사회(S) 요소의 경우, 기업 혼자서만 잘 하면 안 되고 이해관계자, 그 중에서도 관련 공급망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일부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실사의무가 확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사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사의무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상의 기업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과 관련성이 높다. BHR과 RBC는 인권 실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발전되어 왔으나 현재는 환경 이슈도 인권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확장됨으로써 실사의무에는 환경 실사의무까지도 포함하여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23년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의 서문에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먼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실사란 “기업이 인권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부정적 영향이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기업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실질적·잠재적 인권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파악된 결과를 기업의 정책에 통합하여 실천하며, 이러한 정책 반영 결과의 효과를 대응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영향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관해 의사소통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될 수 있다.

EU의 실사의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입법은 2024년 3월 15일 EU 이사회에서 승인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다. 이 지침(안)은 임직원 1,000명 이상 및 연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들에 적용되고(제2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3년 내지 5년 이후에 시행되며 (제30조), 고위험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 특례를 폐지하고, 위반 시 민사책임에 대해 회원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른 실사의무는 제3국의 기업이나 그룹 단위의 최종 모회사에도 부과될 수 있고, 2029년 1월 1일부터는 공사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들도 이 지침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차용한 바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 8일에 종래보다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규정들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각국의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의 분쟁사례들에 대해 한국 NCP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외에도 기업의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의무의 내재화(제5조),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제6조), 식별된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화(제6a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제7조), 실질적·부정적 영향의 제거(제8조),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제8c조), 이해관계자와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 수행(제8d조), 신고 메커니즘 및 진정 절차(제9조), 모니터링(제10조), 공시(제11조) 및 기후변화 대응(제15조) 등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 2023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eon-Hyung Ahn,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2023 Revis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forthcoming (17 June, 2024). 참조.

## 4. 시사점

필자는 이번 글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에 3회에 걸쳐, ESG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주요 개념과의 차이점 이해하기(제88호),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과 ESG와의 관계 이해(제93호) 등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다. 필자의 글을 통해 독자들이 ESG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해외 주요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ESG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ESG 입법 및 정책 강화 추세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세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 긴밀히 소통하며 One Team으로서 여러 정책들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등의 대응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OECD를 비롯한 ESG 관련 국제포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요구를 국제 규범 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 둘째, 한국 NCP는 국내의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공조하여 우리 기업들이 강화된 ESG 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NCP 분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잠재적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ESG 기준 강화 추세와 미국의 가치동맹 전략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특정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선진적인 ESG 경영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 출처 및 참고자료

- 박재흠, “EU 新 배터리법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발표자료집, 2024. 3. 19.
- 안건형, “글로벌 공급망관리(SCM)에서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실사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책임경영(RBC)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역할”, 「법과 기업 연구」 제13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양은영,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관련 동향 - EU 회원국별 준비상황 및 현지 동향”, 대한상공회의소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발표자료집, 2024. 3. 19.
- 임성택,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 ESG”, 「통상」 2023 3월호, Vol. 130, available at [https://tongsangnews.kr/webzine/1622303/sub2\\_2.html](https://tongsangnews.kr/webzine/1622303/sub2_2.html) (2024. 3. 25. 최종접속).
- 정영진 외 3,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승인”, 법률정보 동향, 법무법인 지평, available at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823](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823) (2024. 3. 26. 최종접속).
- 장현숙·황석준, “순환경제 탈(脫)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전략”, Trade Focus, 2023년 22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
- 정빛나, “EU, ‘에코디자인 규정’ 타결...제품 지속가능성 대폭 강화”, 연합뉴스, available at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5160500098> (2024. 3. 25. 최종접속).
- 정영진외 4, “EU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2024년 시행 예정”, 법률신문, 2023. 4. 3., available at <https://www.lawtimes.co.kr/news/186511> (2024. 3. 25 최종접속).
- EU Commission,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 Open Strategic Autonomy”, available at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64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644) (2024. 3. 24. 최종접속).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에너지부문의 사이버안보 위협과 강화방안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소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2021.9.13)

**원문** IEA(2021.4), Enhancing Cyber Resilience in Electricity Systems

에너지 시스템이 디지털화, 분산화됨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사이버 공격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서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부문의 사이버 공격 현황과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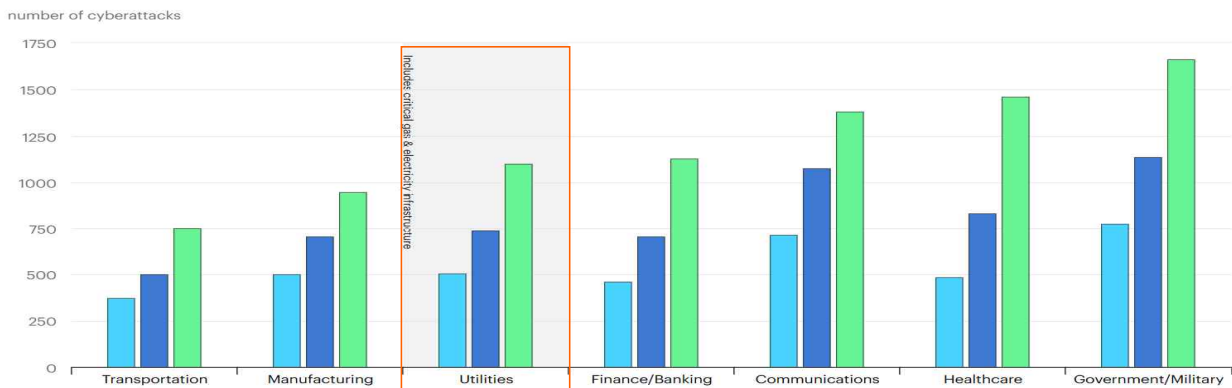
####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

- 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공급과 관련되어 있어 다른 산업보다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으며, 사이버 공격으로 에너지 공급업체의 운영 지장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다른 경제 영역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결과를 유발하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사이버 공격으로 에너지 시스템 관련 장비와 설비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물리적 손상과 에너지 공급도 중단될 수 있음.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 등의 심각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음

#### 사이버 공격 현황

- 에너지부문의 사이버 공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러-우 전쟁('22.2월) 이후, 사이버 공격의 수준은 점점 정교해지고 파괴력은 보다 강력해지고 있음
- '20~'22년 동안 주간 평균 사이버 공격 횟수를 보면, 에너지 공급(유틸리티) 부문은 '20년 주간 평균 504번, '21년 761번, '22년 1,101번 공격을 받았고, '22년 평균 공격 횟수는 '20년에 비해 2배나 증가

[표 1] '20~'22년 동안 특정 산업의 평균 주간당 사이버 공격 수



주 : 유틸리티(Utilities)는 전력, 가스 등의 공급업체를 의미

자료 : IEA 웹페이지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verage-number-of-weekly-cyberattacks-per-organisation-in-selected-industries-2020-2022>)

- ▶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맞물려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라서 **사이버 보안에 더 취약함**

## 📌 사이버 공격 사례

### ①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전력망 사이버공격 (2015년)

- ▶ 전력망을 공격한 첫 번째 사이버 공격 기록됨. 해커들은 악성소프트웨어(malware), 이메일 피싱(email phishing), 서비스거부공격(DOS) 등을 활용하여 30여 개에 달하는 변전소에 대해 전력망 연결을 끊어버려 22만 5천명의 시민들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함

### ② 독일 원자력발전소 바이러스 및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 (2016년)

- ▶ 독일 Gundremmingen 원자력 발전소의 컴퓨터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이 바이러스는 발전소 컴퓨터 및 전력시스템 네트워크의 정보를 유출시키도록 고안됨
- ▶ 다행히, 원자력 발전소의 컴퓨터시스템이 발전소 운영시스템과 분리되어 있어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음

### ③ 우크라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 (2016년)

- ▶ 해커들이 회로차단기(circuit breaker)와 같은 전력망 운영설비에 대해 악성소프트웨어로 공격을 감행
- ▶ 동 공격은 핵심 인프라 운영기술(OT)에 대한 사이버공격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록되었고, Kiev지역에 약 1시간가량 정전사태를 발생시킴

### ④ 독일 풍력에너지기업 사이버공격 (2022년)

- ▶ 독일 풍력에너지 기업 3곳이 러시아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노출됨
- ▶ 에너콘은 풍력 터빈 5,800여 대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중단되었고, 윈드테크틱 AG는 풍력 터빈 원격 제어 시스템이 공격받았으며, 풍력 터빈 제조업체 노덱스는 자사의 보안 시스템이 공격 받음

## 📌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대응능력은 **① 사이버공격 예방, ② 공격 감지 및 탐지, ③ 공격 대응, ④ 문서화, ⑤ 공유**로 강화될 수 있음
  - ▶ (예방)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위험요인과 사이버공격 대응상태 평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 ▶ (공격 감지 및 탐지) 침입 탐지 시스템,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공격을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
  - ▶ (대응)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및 재해 복구 계획을 준수하여 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 (문서화) 사이버공격 사건으로 얻은 교훈의 문서화 및 조직 내재화
  - ▶ (공유) 사이버 공격 관련 새롭게 습득한 지식을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협력
- 🔍 산업계는 선제적으로 **사이버보안 표준을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업계 전반에 걸쳐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함
  - ▶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대응이 조직문화에 융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 **명료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 하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투자해야 함

## 공급망 소식통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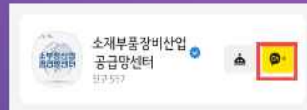
### ◆ 신규구독자 이벤트



2022년 3월 3일,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가 첫 발을 내딛은 이후, 2024년 4월 4일 발간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100호를 기념하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소정의 상품을 나눠드리오니,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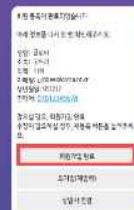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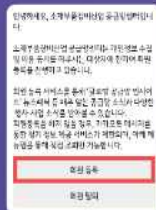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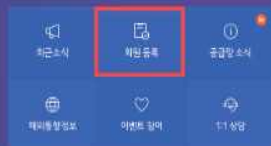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 구독!



#### STEP 2

카카오톡 '채널 메뉴' → '회원 등록' 메뉴탭 클릭하여 정보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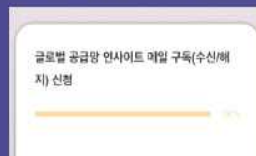
(※ Step 1의 채널 구독만 하실 경우, 구독 여부를 알 수가 없어 반드시 Step2의 회원등록을 해주셔야 응모가 됩니다.)



#### STEP 3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메일 구독까지 하면 응모 완료!

(※ 카카오톡 채널 회원 등록과 회원 정보를 동일하게 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존구독자 이벤트**

※ 두 이벤트 중 하나의 이벤트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인사이트 100호  
 기존구독자 이벤트**

퀴즈 맞추고 혜택받자!

**이벤트 응모방법**

STEP1



모아폼 접속하기!  
 OR  
 링크로 접속 [바로가기]

STEP2



퀴즈 정답 입력하기!

STEP3



이벤트 당첨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 기입하기!

STEP4



인사이트에 하고싶은 말(선택)  
 남기고 제출하기!

... **퀴즈 이벤트** ...

1

2

**Q1.** 100호까지 발간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주간지로, 매주 공급망 관련 이슈를 분석·제공하는 유익한 발간지의 이름은?  
 (힌트: 글로벌 000 0000)

**Q2.** 문제 1번의 주간지에 연재되는 코너 중 하나로, 공급망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기사를 연재하는 코너의 이름은?  
 (힌트: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1페이지 3번째 코너 참고)

... **이벤트 경품 안내** ...

**[신규구독자 이벤트]** 30명

공급망센터 채널, 인사이트 메일을 구독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디야 프레즐 +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증정!  
 \*채널 구독 후 회원등록까지 해주셔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기존구독자 이벤트]** 30명

퀴즈를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디야 프레즐 +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증정!

**경품** 이디야 프레즐 + 아메리카노 세트

**당첨방식** 2024.04.18 목요일

**당첨확인** 인사이트 102호 공지 및 개별 연락

**응모기간** 2024.04.04 - 2024.04.14

**총 60명** EDIYA  
 프레즐 + 아메리카노



**\*유의사항\***  
 본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신규구독자 30명, 기존 구독자 30명 총 60명을 추첨할 예정입니다.  
 두 이벤트 중 하나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 참여 시 하나의 이벤트 참여만 인정됩니다.

◆ **2024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자체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해 **2024년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 **사업명** : 2024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 📌 **지원체계** : 전문 컨설팅사-KOTRA-참가기업 협업체계를 통해 컨설팅 지원
- 📌 **지원대상** :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 및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이 필요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4.12월 (약 6개월)
- 📌 **지원내용** : 핵심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 및 EU CBAM, 공급망실사 등 공급망 관련 정책·제도 대응 컨설팅 지원

☐ **세부 추진내용 및 절차**

구분	내용	업무 수행자
사업공고 및 기업모집	📌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수행사 선정	📌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전문 회계·컨설팅사 선정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기업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참가기업 평가 및 선정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컨설팅 수행	📌 기업별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전략 설계 및 최종 보고서 도출 📌 주요 공급망 규제 동향 및 사례 등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수행사, 참가기업
결과보고	📌 (수행사) 기업별 컨설팅 수행결과 보고 📌 (참가기업) 컨설팅 결과보고 기반 사후 활용 계획서 제출	수행사, 참가기업
최종평가	📌 목표 대비 성과 달성 등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기업별 후속지원 방안 마련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추진일정은 기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4.4.15(월) ~ '24.5.3(금) 18시까지
-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2024년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 **진행절차** : 신청접수(~5.3) → 서류검토(~5.10)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5.22) → 선정결과 발표(5월말)

\* 제출서류, 기업선정 등 세부 내용은 KOTRA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사업 문의**

- 📌 **문의처**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4

## 글로벌 경제지표 ['24.4.9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분	'22년	'23년	'24.2월	4/5	4/8	4/9	전일비	전년말비
W/U\$	1,264.50	1,288.00	1,331.50	1,352.80	1,353.20	1,354.90	0.13%	5.19%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50.85	1,351.00	1,352.60	0.12%	5.11%
W/CNY	181.44	181.37	185.10	185.88	187.07	187.28	0.11%	3.26%
W/¥100	945.56	912.25	888.91	894.53	891.30	892.09	0.09%	△2.21%
¥/U\$	133.73	141.19	149.79	151.23	151.82	151.88	0.04%	7.57%
U\$/EUR€	1.0617	1.1105	1.0835	1.0827	1.0831	1.0856	0.23%	△2.24%
CNY/U\$	6.9630	7.1092	7.1938	7.2330	7.2338	7.2336	△0.00%	1.75%

\* '23년 평균 환율: (W/U\$) 1305.9원, (W/¥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W/U\$) 1331.6원, (W/¥100) 895.8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4/8	4/9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90.03	90.74	0.7	20.4	13.7
					0.8%	29.1%	17.7%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4.45	107.55	3.1	10.2	△33.0
					3.0%	10.5%	△23.5%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301.00	9,295.50	△5.5	1,483.0	819.5
					△0.1%	19.0%	9.7%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0.6%	16.2%	2.9%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7,700.00	17,780.00	80.0	1,895.0	1,480.0
					0.5%	11.9%	9.1%

### 반도체

구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4/4	4/5	4/8	4월(~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92	1.92	1.92	1.92
(%, YoY)	29.9%	△23.0%	△14.8%	△3.6%	6.6%	17.3%	17.6%	17.6%	17.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40	6.40	6.40	6.40
(%, YoY)	14.7%	10.7%	△2.3%	△1.9%	△0.7%	0.2%	0.2%	0.2%	0.1%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12/30('22년)	12/29('23년)	3/22	3/29	4/3	전주비(3/29)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1732.57	1730.98	1745.43	0.8%	△0.8%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12/23('22년)	12/22('23년)	1/1	3/28	4/2	4/3	4/4	전주비(4/3)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821	1714	1711	1669	△2.5%	△20.3%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02\_research@ki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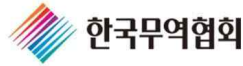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 주관기관



###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